



유형	사전 명칭	개요	비고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10개)	《한국어-러시아어 학습사전》	《한국어기초사전》의 표제어와 뜻풀이를 번역하여 병렬 제시	시범 운영
	《한국어-몽골어 학습사전》		
	《한국어-베트남어 학습사전》		
	《한국어-스페인어 학습사전》		
	《한국어-아랍어 학습사전》		
	《한국어-영어 학습사전》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학습사전》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		
	《한국어-타이어 학습사전》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이 사전들을 세상에 내놓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받은 질문은 “왜,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국립국어원에는 이미 51만 단어 규모의 《표준국어대사전》이 있었고 국내 대형 들머리(포털) 사이트에는 외국어 사전들이 줄줄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들 사전들과 국립국어원의 새 사전들은 (1)에서도 간략히 드러나듯이 기존의 사전들과는 아주 다른 것들이고, 따라서 만들게 된 동기는 각각 뚜렷하다.

이 글에서는 이 3종 12개 사전의 개발 동기로부터 시작하여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2. 사전 편찬의 배경과 의의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1년에 국립국어원(당시 명칭은 ‘국립국어연구원’)이 개원하고 이듬해인 1992년부터 《표준국어대사전》이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1999년 한글날에 완간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도서로 분류되는 인쇄 사전의 형태로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나날이 발전하는 사전 편찬 기법이나 국어학의 성과를 더하는 대대적인 보완 등의 개정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는 정부 예산 편성의 특성상 새로운 사전을 만드는 것만 신규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대규모의 국어사전을 이미 만들어 두고 새 사전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본 사업비만으로 인터넷 사전화하거나(2002년), 소폭의 개정(2008년)을 하였을 따름이었다.

이러던 중 이명박 정부 초기에 날로 발전하는 우리 경제와 문화를 생각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사전이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면서 외국의 우수한 사전 규모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국어대사전, 그리고 한류의 확산을 도울 한국어 학습 사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져 《우리말샘》을 필두로 한 12개 사전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승인되고 예산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2009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 해인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사전의 개발 및 편찬이 시작되었다.

이 사전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말샘》이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누구나 인정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지금껏 국립국어원은 어문 규범의 수호자, 또는 전통적인 언어 규범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쯤으로 여겨져 왔는데, 《우리말샘》은 규범과 무관하게 언어 현실을 최대한, 그리고 거의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이른바 ‘기술 사전’임을 표방하기 때문이다. 즉, 규범 설정 및 보급을 맡은 기관에서 어떻게 규범 사전과 동시에 기술 사전을 운영할 것인가가 사회적 관심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국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대한 관심과 함께 어떤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아주 순수한 기술 사전을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기는 매우 난처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추측에서였다. 개통 후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경과를 바탕으로 이에 답하자면, 이러한 추측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규 제안 어휘에 대해서는 이미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판정 기준을 들어 등록 여부를 가릴 수 있었고, 나머지는 미처 생각지 못한 어휘 유형들로서 그 처리 방안을 새로이 지침에 반영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기술 사전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수준의 올림말을 수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말샘》의 현실 반영 수준은 세계 유명 사전들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말샘》은 사용자 참여(즉, 이른바 ‘집단 지성’)를 통해서 우리말의 어휘 자원을 총괄 수집하고 어휘나 각종 올림 표현들의 내적 정보들(국어 화자들의 언어 지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편찬 취지를 그 의의로 내세우며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진다. 다만,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세계 최초로 사용자 참여형으로 운영되는 언어 사전이며 수록 항목 규모로도 현재 세계 최대인 사전이 《우리말샘》인데, 인터넷 시대인 지금 사전의 평가를 운영 방식이나 규모로 내리는 것이 그리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 대한 평가나 의의 부여는 독자께서 각자 해 주시기 바란다.

### 3. 새 국어사전의 속성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으로 대표되는 국립국어원의 국가적 어문 규범 정책으로 말미암아 《표준국어대사전》이 공공 영역에서 확고한 언어 지침이 된 지 벌써 오래이다. 단어의 정의가 필요한 신문 논설 등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하거나,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의 편집 지침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와 띄어쓰기가 주축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른 두 개의 국어사전이 탄생하였으므로 국민들이 이 두 사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축으로

삼아 서로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간단하게 각 사전의 속성을 표로 정리해 보자(2016년 11월 기준).

## (2)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비교

구분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편찬 목적	언어생활의 지침 제공	우리말 어휘 자산의 집결	무료 한국어 학습용 어휘 사전 마련을 통한 한국어 확산에 기여
유형	규범 사전	기술 사전	규범 사전
어휘 규모	약 51만 개	약 100만 개	약 5만 개
등재 단위	어휘	의미(뜻풀이)	어휘
운영 방식	폐쇄형 (국립국어원 단독 관리)	개방형 (국민 참여 및 전문가 감수)	폐쇄형 (국립국어원 단독 관리)
존재 형태	인터넷 사전	인터넷 사전	인터넷 사전
콘텐츠 저작권	국가 소유	저작권 없음	저작권 없음
발간 (개통) 연월	1999년 10월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잘 알려져 있듯이 《표준국어대사전》은 종이 사전으로 출발한 국가 대표의 규범 사전으로, 편찬 이전에 각 민간 사전마다 달랐던 어휘별 표기, 발음, 의미 등으로 인해 언론, 출판 등에서 혼란이 적지 않았던 사회상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즉, 서구처럼 오랜 시민 사회를 겪으면서 자율적으로 어문규범이 확립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일제 치하에서 말살 직전에 이르렀다가 광복과 함께 급작스러운 근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는 자연스러운 언어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간 혼란을 겪고 있었고,

국가 체제 확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위적인 언어 표준화가 단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4대 어문 규범으로 일컬어지는 『한글 맞춤법』(1988), 『표준어 규정』(1988), 『외래어 표기법』(198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이었다. 그런데 표준어 규정만으로는 언어로서의 표준어나 단어로서의 표준어를 정할 수 없었다. 개별 어휘의 표기를 규정하고자 한 『한글 맞춤법』 역시 국어의 모든 어휘를 직관 또는 전통적인 관습에 맞게 적는 기준으로는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기초로 한 민간의 사전들이 바로 그 증거였다.

따라서 교육, 공문서 작성, 방송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언어적 혼란 특히 최대한 단일하여야 하는 표기의 혼란이 있었고, 국민의 언어생활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은 국립국어원으로서는 적어도 어휘와 표기의 측면에서 단일한 규범을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표준국어대사전》이다.

발간 당시의 사전은 당연히 종이 사전 형태였고 사전에 오르는 단어들은 언어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 즉 표준어 혹은 규범어로 인정될 만한 것이 중심이었다. 이에 더하여 북한어, 방언, 옛말을 기존의 사전들보다 확장하여 실거나 다소 비속하거나 비표준적인 것을 실기도 하였지만 규범 안내를 위해서 고빈도를 보이는 것이어야 했으므로 등재어는 대단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등재어나 뜻풀이 등 미시 구조의 변개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고 보수적인 어문 규범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2001년에는 종이 사전을 그대로 옮겨 시디 사전을, 2002년에는 인터넷 사전을 개통하였으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었고 2008년 인터넷으로만 운영하기로 하고 개정하면서 수천 개의 표제어가 추가되었다. 2010년부터는 정보보완심의위원회를 두고 분기별 1회씩 오류를 수정하거나 새로 정립된 언어 현상을 반영하는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규범 안내 기능 중심의 규범 사전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규범 사전의 편찬 및 유지, 관리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행하여 온 국립국어원의 핵심 기능에 포함됨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 외에도

국립국어원의 임무가 여럿 설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정보 서비스이다<sup>1)</sup>. 이러한 자원 수집 및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규범의 합리적 수립이나 정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당연한 임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임무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대표적인 사업이 10년간 수행되어 2007년에 종료된 ‘21세기 세종계획’이었다. 이 사업에서는 주로 말뭉치, 기계용 전자사전 등 전산 처리용 자원을 구축하거나 옛 글꼴 등 전산화가 필요한 자료들을 전산화하고 또 흩어져 있던 여러 국어 자료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는 활동을 하였다. 여기에서 만들었던 국어 어휘 자원의 총집합체를 사전 형식으로 만든 결과가 곧 《우리말샘》의 큰 부분을 차지함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즉, 어떤 면에서는 《우리말샘》 구축 사업이 21세기 세종계획의 후속 사업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말샘》은 그 성격상 1회성 사업으로 마칠 수 없는 것이어서 연속적으로 새 어휘를 더하여 가는 방법론이 필요했는데, 그 수단으로 개방형 체제를 취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것은 첫째, 현실적으로 국립국어원 자체 인력과 예산만으로 수행하기는 버겁고, 둘째로 개방성이 강조되는 사회 환경이 도래하였으며, 셋째로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사용자가 편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개방성은 위키피디아처럼 완전한 개방성 또는 동시 접속 편집 엔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샘》의 개방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 볼 수 있다. 첫째는 (2)에 나타난 것과 같은 편찬자의 개방이다. 이 개념은 국립국어원 직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회원 가입을 통해 편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각 어휘 항목마다 화면 아래에 ‘의견 보내기’란이 있어서 본명이나 익명으로 오류나 개선안 제보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1) 국립국어원 누리집 > 국어원 소개 > 설립 목적 참조

일종의 참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샘》에서는 이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새 어휘의 미시 구조를 능력껏 집필해서 제안할 수 있고, 기존 어휘의 수정도 역시 능력껏 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활동 결과가 바로 노출 또는 검색되지는 않는다. 《우리말샘》에서는 대표적인 집단 지성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정보를 학계에서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 지성에만 의존하는 정보 생성 체계보다 더욱 빠르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한 때문이다. 그래서 취지에 맞는 제안은 등록을 거쳐 우선 ‘참여자 제안 정보’에서 검색되며, 이에 대한 전문 감수가 완전히 끝나면 ‘전문가 감수 정보’에서 기본적으로 노출된다. 두 번째의 개방성은 수록 어휘나 구, 즉 표제항에 대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앞서 말한 대로 제약적인 규범 사전이어서 신어나 구어를 마음껏 올리지는 못하였으나, 자원 축적용 사전인 《우리말샘》은 사회성만 확인된다면, 그리고 단적으로 표현해서 사회 통념상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표제항을 한껏 수용하고자 하는 사전이다. 개통 당시에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리지 못하였던 신어, 생활 용어, 전문 용어를 40만 항목 정도 수록하였고, 개통 1개월 만에 약 1천 개의 어휘 또는 구가 사용자 제안으로 신규 등록되거나 수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특징이 잘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기초사전》은 학습 사전이기 때문에 보수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준하는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어의 규범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용이기 때문에 언어 현실에서 자주 쓰이는 비표준적인 표현을 다수 실으면서 표준적인 것을 알려 주는 체제를 택하였다.

흔히 외국어를 공부할 때 용언 변화형이 잘 찾아지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있다. 국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규칙 용언이 불편한 요소라서 용언의 변화형이 찾아질 수 있도록 검색 대상화하였다. 또한 외국어에서는 한 단어인

데 국어에서는 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구 표현인 경우가 표제항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ㄴ 것 같다’, ‘-ㄴ까 싶다’, ‘-ㄴ 만큼’, ‘-에 관한’ 등인데 이를 《한국어기초사전》에서는 문법·표현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체제는 《한-외 학습사전》에 그대로 이식되기 때문에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의 차이는 번역 여부이다.

《한-외 학습사전》은 표제어의 대응어, 그리고 뜻풀이의 번역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한국어기초사전》과 구별된다. 또한 메뉴나 도움말 같은 메타 요소들도 당연히 번역되어 있다. 앞으로 예문도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과제 중 하나이다.

네 가지 사전의 미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3)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의 미시 구조

미시 구조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표제항 표기	○	○	○	○
원어 정보	○	○	○	○
발음 정보	○	○	○	○
발음 녹음	○	○	○	○
전문 분야 정보	○ (53개 분야)	○ (67개 분야)		
활용 정보	○	○	○	○
품사 정보	○	○	○	○
문형 정보	○	○	○	○
문법 정보	○	○	○	○
뜻풀이	○	○	○	○ (대응어, 번역된 뜻풀이 추가 제시)

미시 구조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관용구/ 속담	○	○	○	○
용례	○	○	○	○
관련 어휘	○	○	○	○
어원 정보	○	○	○	
사진/삽화/ 동영상	○ (동영상 제외)	○	○	○
역사 정보 (설명/ 이표기/ 세기별 용례)	○ (시대순 어휘 변화의 나열에 한정)	○		
어휘 지도		○		
규범 정보	○	○	○	
전문 지식 정보		○		

위 표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말샘》의 미시 정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것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발음 기호가 표기와 같으면 발음 정보를 생략하여 발음 정보를 주지 못한 북한어나 방언, 외래어, 기타 비규범어에 발음 정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선뜻 구분할 수 없었다. 이는 일러두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종이 사전의 공간 절약형 편찬 방식에서 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말샘》에서는 발음 기호와 표기가 같더라도 발음 정보를 채워 넣었다.

전문 분야 체계도 새로 설정하였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53개로 나누었던 것을 《우리말샘》에서 67개로 확장하였다. 이는 새로 추가된 다수의 전문 용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류 체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때문이었다. 그 결과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분야 할당 지침이 다소 바뀌기도 하였다.

뜻풀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약 8만 8천 개 항목에서 《표준국어대사전》보다 쉽게 풀이한 것이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지침이 거의 그대로 활용되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관련 어휘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의어, 본말, 준말, 비슷한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 참고 어휘가 관련 어휘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미시 구조 맨 끝에 통합하여 제시되기 때문에 각각의 관련 어휘가 어느 의미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가 수월치 않았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개선하였는데, 일단 《우리말샘》의 등재 단위가 뜻풀이이기 때문에 그 각각마다 의미 단위의 관련 어휘들이 제시되며, 비슷한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 본말, 준말, 상위어, 하위어, 방언, 옛말로 관련 어휘 목록이 조정되었다. 또한, 내용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관련 어휘 정보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서 정비 사업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거나 상위어, 하위어 등을 보충하였다. 이 가운데서 방언과 옛말을 제외한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어휘 지도가 그려져 서비스되고 있다. 어휘 지도는 각 어휘별 세부 내용 화면의 맨 아래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 기본 상단 메뉴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어 별도의 창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역사 정보가 그다음으로 크게 바뀐 정보 영역이다. 이를 보면 세기별 어휘 표기를 제시하면서 그 아래에 역사적 변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표기를 제시하면서 세기별 용례까지 보여 준다. ‘돌아가다’의 역사 정보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국어사 자료 여건이 허락된 5천 항목이다.

역사 정보

도라가다(15세기~19세기) > 돌아가다(16세기~현재)

설명	<p>현대 국어 ‘돌아가다’의 옛말인 ‘도라가다’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도라가-’는 ‘돌-’과 연결 어미 ‘-아’의 결합인 ‘도라’와 ‘가-’가 결합한 것이다. 16세기에 분철 표기 한 ‘돌아가다’로 나타나서 현재에 이르렀다. 18세기에 제1음절의 ‘·’가 ‘ㅏ’로 변화하는 경향 때문에 ‘·’와 ‘ㅏ’의 혼동 표기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19세기의 ‘도라가-’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p>
이형태/이표기	<p>도라가다, 돌아가다, 도라가다</p>
세기별 용례	<p><b>뜻풀이</b></p> <p><u>15세기 : (도라가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허에 무를 디내샤 도주기 다 <b>도라가니</b> &lt;1447 용가 48&gt;</li> <li>▷ 네 가야 포의 슬부라 正覺을 일우면 <b>도라가리라</b> &lt;1447 석산 3:31 ㄱ&gt;</li> </ul> <p><u>16세기 : (도라가다, 돌아가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 므슴 흥경 ㅏ슴 사 高麗사 싸해 <b>도라가</b> 푸노노 &lt;1510년대 번노 상:12 ㄴ&gt;</li> <li>▷ 三年이도록 <b>돌아가</b> 되시디 아니흔 이 잇거늘 내티니라 &lt;1588 소언 6:7 ㄴ&gt;</li> </ul> <p><u>17세기 : (도라가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이 아비 병들거늘 즉시 <b>도라가</b> 약을 받좁고 &lt;1617 동삼 효:4 ㄴ&gt;</li> <li>▷ 主人 以下   각각 喪次에 <b>도라가라</b> &lt;1632 가언 5:35 ㄴ&gt;</li> </ul> <p><u>18세기 : (도라가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집의 <b>도라가</b> 우리 老孀을 불러와 너를 티리라 &lt;1721 오륜전비 1:12 ㄱ&gt;</li> <li>▷ 과 ㅏ리 두라오디 말며 과 ㅏ리 <b>도라가디</b> 말며 &lt;1737 여내 1:7 ㄴ&gt;</li> </ul> <p><u>19세기 : (도라가다, 돌아가다, 도라가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의 아들의게는 <b>도라가지</b> 아니후고 순의게 도라오거늘 &lt;1832 십구 1:17 ㄴ&gt;</li> <li>▷ 날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b>돌아가라</b> &lt;1887 성전 마가복음 2:11&gt;</li> <li>▷ 몸으로 본밧고 힘뻑 힘후기를 일 수우면 복이 <b>도라굴</b> 비 잇스리라 &lt;1880 과학 20 ㄴ&gt;</li> </ul>

한편, 12,800여 개의 옛말 표제어에는 예문을 현대 국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오얏’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오얏

▣ 편집하기

품사 「명사」  
분류 「옛말」

「002」 '자두'의 옛말.

▷ 오얏 닙과 대춧 닙 디혀 쓴므를 디그면 죽재 도후리라. <구간 6:29>

원문: 李葉【오얏닙】, 栗葉【대춧닙】, 擣絞取汁, 點上即效.

번역: 자두의 잎과 대추의 잎을 찼어 짠 물을 짼어바르면 즉시 좋아질 것이다.

규범 정보는 어휘마다 표기, 표현, 의미, 순화,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범 관점에서 서술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작다’를 보면 “<어휘> ‘작다’와 ‘적다’를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으나 구별하여 써야 한다. ‘작다’는 크기의 개념으로 ‘키가 작다.’, ‘작고 조용한 마을’과 같이 쓰며, ‘적다’는 양의 개념으로 ‘적은 돈’, ‘관심이 적다.’와 같이 쓴다. ‘작다’의 반대말은 ‘크다’, ‘적다’의 반대말은 ‘많다’이다.”처럼 해당 영역을 밝히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약 2만 개의 어휘에 부가되어 있다.

한국어 학습 사전들에서는 (3)에서 보듯이 미시 구조가 조금 적게 설정되었다. 한국어 학습자 관점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어휘도 조정되어 유의어, 반대말, 큰말, 작은말, 센말, 여린말, 본말, 준말, 높임말, 낮춤말, 참고어가 제시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련 어휘로 어휘 지도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5만 단어 규모로는 어휘 지도가 그다지 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4.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번에 탄생한 새 국어사전들은 우리말이 사어가 되지 않는 한 완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금씩, 때로는 그보다는 많이 언어

변화가 반영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만 사전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적극적인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우선 《우리말샘》에서 미시 구조 각각의 내용면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런데 이는 상당 부분 기존의 종이 사전 체제에서 이어받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미시 구조 순서대로 몇 가지를 나열해 본다.

첫째, 북한어 표제어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편찬 당시 남한 사전에 없는 《조선말 대사전》의 기본 표제어, 즉 문화어를 북한어로 처리하였고, 발간 이후 북한어로 처리되어 있던 것 가운데 남한에서도 쓰이는 것을 간간히 발굴하여 북한어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전체를 말뭉치나 언어 현실과 비교 검토하여 순수한 북한어와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릴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말샘》 개발 당시에 역사 정보를 구축하면서 옛말 표제어로 쓸 만한 것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이를 표제어화하지 못하였다.

셋째, 원어 정보이다. 기존의 사전처럼 《우리말샘》에서도 외래어의 경우 해당 외국어에 실존하는 표현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선글라스’는 ‘(←sunglasses)’로 되어 있어 영어의 원래 표현이 있고 그것에서 형태가 변한 것임을 알려 주거나, ‘콩글리시’처럼 ‘(▼Konglish)’로 표시하여 해당 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임을 알려 주지만, ‘다운(down)하다’에는 그러한 표시가 주어지지 않는다. 기실 영어의 ‘down’에는 동사적 용법도 있어 ‘급히 먹다, 격추하다’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정작 국어에 와서는 ‘(온라인에서)내려받다’로 쓰이므로 이는 영어에 없는 어법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이는 콩글리시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서 외래어 및 외래어가 섞인 혼종어에서 원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 주는 것이 일관적이고 또 정보적 가치가 있을지 사전학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발음 정보이다. 《우리말샘》은 기술 사전이므로 표준 발음뿐 아니라 현실 발음도 사회성이 부여된 것이라면 충분히 추가할 수 있다. 아직은 일반 회원들이 발음을 추가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 아마 표기나 뜻풀이가 주요 관심 사항이기 때문일 것이다. 고빈도 어휘 표준어 가운데 간혹 과거에는 충분히 표준 발음의 자격을 누렸던 것이 이제는 빈도가 떨어지고 다른 발음에 자리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일괄 조사 후 추가 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섯째, 앞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비해 관련 어휘로서 방언과 옛말이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의 옛말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가 ‘~의 옛말’인 표제어를 실었는데, 간혹 《우리말샘》의 세부 정보에서 그 바로 밑에 나오는 역사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의미적 옛말이건 형태적 옛말이건 가리지 않고 ‘옛말’로 포괄적으로 지칭한 때문이고, 관련 어휘 구축과 역사 정보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상호 참조가 되지 못한 탓도 있다. 따라서 우선 관련 어휘의 옛말을 어원적 옛말과 유의적 옛말로 구분하고<sup>2)</sup>, 적어도 《우리말샘》 내에 등장하는 관련된 옛말을 빠짐없이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동사와 피동사의 뜻풀이가 ‘~의 사동사’, ‘~의 피동사’로 종이 사전 시대의 형식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독자는 ‘~’에 해당되는 동사를 다시 찾아 보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우리말샘》의 등재 단위인 뜻풀이 숫자로 이러한 사동사는 847개, 피동사는 1,173개여서 뜻풀이를 풀어 헤쳐서 독자들이 종이 사전 시대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중 매체(멀티미디어) 정보의 확충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온 사진, 삽화와 더불어 추가로 구축한 동영상, 음성 파일이 다수 있으나 부족하며, 앞으로 무한히 등장할 새 어휘에 대한 정보 보충을 위해서

2) 사전 화면에서의 명칭은 별도로 고안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현재로서는 각종 전문 용어에 대한 자료가 우선 아쉽다.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보다 그림 한 장, 사진 하나가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디스트리뷰터’에는 “점화 코일에 발생한 고전압을 점화 순서대로 플러그에 점화하는 기계. 자동차 부품의 하나로, 단속기·점화 시기 조정 장치·배전부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설명문만 뜻풀이로 제시되어 있을 뿐, 다중 매체 자료는 구비되어 있지 않다.

한국어 학습 사전류에서도 보충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첫째, 《한-외 학습사전》에서는 꼭 필요한 표제어와 뜻을풀이를 각 언어로 번역해 두었다. 그러나 예문에도 어휘별 대응어가 부가되거나 문장 전체가 번역되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예문 전체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서비스도 학습자에게 유용할 것이다.

셋째, 《우리말샘》과 마찬가지로 다중 매체 정보가 충분히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다중 매체 정보는 특히 기본 어휘에 속하는 우리 문화에 독특한 면을 표현하는 명사는 물론 동사나 형용사, 상징어를 포함한 부사 등에서 우리말 특유의 의미 영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어의를 이해시키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본다.

## 5. 나가기

지금까지 2016년에 개통한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및 10개 《한-외 학습사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말샘》은 우리 사회에서 첫 대규모 기술 사전으로 인식되어 이번 개통의 얼굴 역할을 맡아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으며, ‘진화하는 사전’이라는 속성으로 홍보된 바 있다. 이는 사용자 참여형이라는 편찬 양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전보다 현재화 속도가 현저히 빠를 것이고, 사용자 편의도 날로 높게 하겠다는 국립국어원의 의지를 담은 것이기도 하다.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은 살아 있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이므로 관리 책임자가 항상 눈과 귀를 크게 언어 현실에 대고 있어야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날로 발전하는 교육학적 성과를 반영하기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또한 진화‘해야 하는’ 사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도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될수록 많은 국민의 참여와 바람직한 기여, 관심이 이 모든 사전에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고대해 본다. 그러한 사회적인 주목이 이 사전의 관리 책임을 맡은 이에게 힘과 더욱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